부활 주일 강론(2019년 4월 21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부활 축하드립니다. 행복 하시죠? 기쁘시죠? 그냥 그저 그런가요?

저는 지난 성삼일 전례를 하는 동안 내내 예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 아쉬울 게 없는 분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수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었을까? 그것도 스스로 자처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 약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제가 성목요일부터 성금요일, 어제 부활 성야 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쁜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꽃이 막 피는 계절이죠. 여기 성당도 이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 하시나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지난 성삼일동안 전례 하면서 그런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스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랑이 승리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랑으로 갚았던 그날.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랑이 부활합니다.

그날 아침이었죠. 사흘 전,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여인이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합니다. 아마도 당시 풍습대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무덤 값을 지불하려 했을 겁니다. 안식일이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누구도, 빈 무덤을 발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천사의 메세지를 듣습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여인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우리들에게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그 날 아침 생긴 일입니다. 그날 부활한 것은 단지 그분의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의 사랑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이 전하는 중요한 몇가지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실.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어둠, 불행, 저주, 죽음 등을 상징합니다.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어둠이나 불행, 저주, 죽음 따위는 없습니다. 텅 빈 무덤은 이제 희망과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찹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이제 더이상 불행이나 어둠, 저주, 미움, 죄 따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이, 사랑이,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어둠, 불행, 저주 등을 상징하던 무덤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담긴 두번째 진실.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천 조각들이 모두 풀어졌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죽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붕대같은 천으로 시신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얽어매고, 칭칭 감았던 족쇄들이 이제 모두 풀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고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문제들과 걱정거리들, 어려운 상황들과 고통들이 우리 육신을 꽁꽁 얽어매고 있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꽁꽁 얽어매고 있고, 그런채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이상 우리 육신을 얽어매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은 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을 얽어매고, 칭칭 감았던 족쇄들이 이제 모두 풀어졌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의 세번째 진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무덤은 산비탈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커다란 바위로 그 무덤을 막습니다. 그 큰 바위는 단지 몇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텅 빈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바위를 치워야 합니다. 이것이 키 포인트 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커다란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 편견, 고정관념, 고집, 욕심, 미움 따위의 감정들이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돌덩이를 치워야 부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돌덩이를 없애버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며,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돌덩이는 아마도 혼자서는 치울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치워야 하는 커다랗고 단단한 돌덩이 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덩이는 때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치워져야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히 위로와 희망어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무덤이 이제 텅 빈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을 희망과 사랑, 행복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을 얽매고 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다 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단단한 돌덩이를 치워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삶은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교회의 역사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 바로 내 자신의 구원 이야기,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새 출발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행복과 기쁨이 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